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14호> 2017년 7월 발행

「What`s Up, OITA!」는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있는 여러분들께, 일본 오이타현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인사】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과장 토쿠노 미츠루(徳野 満)

외국인 유학생과 면담할 때 모두 오이타에 와서 좋았다며 오이타의 자연과 음식, 사람들, 또 가능하면 오이타에 남아 취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은 지역 사회에 공헌할 잠재력을 갖춘 인재들입니다. 현에서도 유학생들이 오이타현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노력해나가고자 합니다. 지역, 기업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오이타현 주목 기사>

외국인 유학생 제1회 오이타현 스터디 투어



인구 당 유학생 수가 전국 1,2위를 다툴 정도로 약 90여개 국가에서 온 3,500명이 넘는 많은 유학생들이 오이타현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이타현에서는 사비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한 장학금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으며, 오이타현의 좋은 점을 널리 알리고자 장학금 대상으로 ‘오이타현 스터디 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1회 스터디 투어에서는 오이타시 상공노동관광부 관광과의 협력으로 오이타시 중심부를 산책했습니다. 오이타역을 시작으로 후나이 5번가, 유히공원, 죠시공원, 상점가 등을 걸어다닌 후 오이타현립미술관을 견학했습니다. 견학이 끝난 유학생들은 워크숍을 진행하며, 오이타시 중심부의 매력과 활성화시키기 위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오이타현 소식>

소보(祖母) · 카타무키(傾) · 오오쿠에(大崩) 에코파크 등록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는 6월 14일 오이타현과 미야자키현에 걸쳐있는 산악 지대 ‘소보(祖母) · 카타무키(傾) · 오오쿠에(大崩)’를 에코파크로 등록했습니다. ‘에코파크’란 환경보전 뿐만 아니라 자연과 사람과의 공생을 도모한다는 시점에 중점을 두는 유네스코 자연보호사업입니다. 오이타현내에서 등록된 것은 처음이며, 사이키시, 다케타시, 분고오노시의 지역이 포함됩니다.

사이키시에서 진도 5강의 지진 발생

지난 6월 20일 오후 11시 27분 경, 분고수도가 진원지인 지진이 발생했으며, 사이키시 츠루미에서 진도 5강의 지진을 관측하였습니다. 구마모토, 미야자키현에서 진도 4를 기록하는 등 규슈, 시코쿠 등 넓은 범위에서 지진이 감지되었으나 큰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이타현 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된 직후, ‘재해시 다언어 정보 센터’가 설치되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지진 정보를 발신했습니다.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14호> 2017년 7월 발행

오이타 속 한국인을 만나다! 나카츠시 국제교류원 정미란



1.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카츠시청 종합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미란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국제교류원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2. 시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주업무는 초등학교 방문과 시민 대상 한국어 강좌입니다. 초등학교 방문은 의뢰가 있으면 다른 곳도 방문하지만, 현재는 한 학교를 4년째 방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선생님이 된 듯한 기분으로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거나 한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어 입문 강좌는 10회씩 1

년에 두 번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는데, 늘 모집인원이 넘칠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최근에 야바케이를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야바케이 상점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회화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처음으로 요리 강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처음이라 긴장되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3. 나카츠시에 대한 첫 인상은 어떠셨나요?

유학과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일본에서 거주한 경험은 있지만 전부 관동이었기 때문에 규슈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곳인지 몰라 걱정도 됐었지만, 공기도 좋고 교통이 편리해서 후쿠오카도 가깝고 한국과도 가까운 편이라 좋습니다. 또 한번 본 사이인데도 바베큐 파티에 초대해주시거나, 놀러갈 때 같이 놀러가자고 불러주시기도 하는 등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분이 많아서 정말 좋은 곳 같습니다.

4. 주말이나 여가 시간은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요즘 수영을 배우러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은 학교에서 수영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저는 수영을 못 하는데, 일본에는 모두 기본적으로 수영을 배웠고 초급인데도 잘하는 사람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수업 진도가 빨라서 처음엔 애를 먹었는데 실력이 느는게 느껴지면서 지금은 저도 즐기며 다니고 있습니다.

5. 국제교류원 업무를 하며 뿌듯했던 적이 있었나요?

길을 가다가 제가 방문하는 학교 학생들과 마주치면 “안녕하세요”라며 한국어로 인사해줍니다. 처음에는 한국어 어디있는지도 몰랐던 학생들이 이제는 한국어 인사도 간단하게 할 줄 알게 되고 저에게 한국어로 말걸어 줄 때 뿌듯함을 느낍니다.

6. 한국 분들에게 나카츠시의 매력을 소개해주세요.

오이타 북서쪽에 위치한 나카츠시는 오이타현내에서 오이타시와 벳푸시에 이어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아직까진 한국 분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지만, 나카츠성이나 야바케이 등 관광지도 많으며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또 나카츠 카라아게는 전국적으로도 유명한데요. 카라아게 전문점 수도 많고, 카라아게 이벤트가 개최되면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카라아게도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7. 나카츠시에서 추천하는 관광지가 있나요?

산 중턱에 있는 절인 라칸지는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야한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리프트도 안전장치가 없어서 한국에서는 좀처럼 경험해보지 못하기에 라칸지를 방문해보신다면 꼭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또 야바케이는 단풍시기에 정말 아름다우니 늦가을에 방문하시면 그림같은 절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8. 앞으로의 목표 및 포부가 있으신가요?

제가 나카츠시청에 첫 국제교류원으로 부임하여 어느덧 4년차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안해봤던 일도 새롭게 기획해 보고 남은 기간 동안 나카츠에서 즐거운 추억을 많이 남기고 싶습니다.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제 14호> 2017년 7월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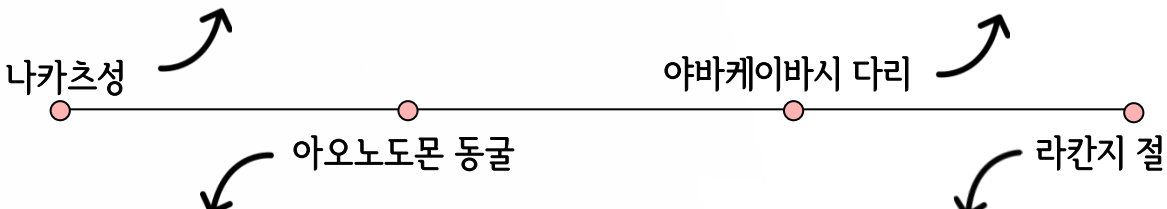
오이타 100% 즐기기! 나카츠 관광지 투어



‘나카츠성’은 1588년 쿠로다 요시타카가 나카츠강 하구에 축조한 성으로, 일본 3대 수성 중 하나로 꼽힙니다. 천수각 내부는 역사자료관으로 당시의 유물 및 갑옷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천수각 전망대는 사방으로 뚫려있어 나카츠 시내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쿠로다 와 호소카와 시대에 각각 쌓아 올린 성벽의 모양 차이가 확연하기 때문에 찾아서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나카츠성 입장료 성인 400엔, 어린이 200엔

‘야바케이바시 다리’는 일본에서 유일한 8연속 아치 모양의 석조이며, 길이도 116m로 일본 제일을 자랑합니다. 1923년에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현재까지도 자동차 통행이 가능합니다. 야마쿠니가와강에 걸쳐있는 석조의 모습이 자연과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운 경관을 뽐냅니다.



‘아오노도몬 동굴’은 암벽을 따라 나 있는 험준한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젠카이 스님이 정과 망치로 30여년에 걸쳐 완성한 터널입니다. 터널 안을 밝혀주는 창문 등 직접 손으로 파낸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야마쿠니가와 강 건너편에서 바라보는 아오노도몬 동굴과 우뚝 솟은 교슈봉은 마치 한쪽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젠카이 스님과 아오노도몬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야바케이 박물관’을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야바케이 박물관 입장료 어른 100엔

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어 뛰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라칸지 절’은 오백나한상 등 각기 다른 표정을 짓고 있는 3,700체 이상의 석불이 안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이 곳의 명물은 산 정상까지 이어진 리프트입니다. 급경사를 안전장치 하나 없는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웬만한 놀이기구보다 스릴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리프트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 올라가는 경우, 참배길을 따라 인왕문을 지나게 되며 리프트와는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리프트 이용료 왕복 700엔

